



KB국민은행, 적십자회비 3억원 기부

KB국민은행은 17일 대한적십자사에 적십자회비 3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의료 취약계층과 국내외 이재민, 북한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허민 KB국은행장(오른쪽)이 비대면으로 적십자회비를 전달하고 포즈를 취했다.

/KB국민은행



서울신라호텔, 3년 연속 ‘포브스 트래블’ 5성

서울신라호텔이 호텔판 미쉐린 가이드로 불리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에 서 국내 호텔 최초로 3년 연속 5성 호텔로 선정됐다.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1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를 공식 발

표했다. 이번 ‘2021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에서 서울신라호텔은 국내 호텔 최초로 3년 연속 5성 호텔로 등재되면서 전세계 283개의 5성 호텔 중 하나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호텔로 다시 공인 받았다.

/원문 기자 silverbeauty@

살림의 추억



‘설마 집밥만큼 맛있겠어?’라고 알 봤다가 곧 생각을 고쳐먹게 만든 제품이다. 국내 대표 즉석밥 브랜드 ‘햇반’ 얘기다.

1996년 12월 첫 선을 보인 햇반은 2019년 기준으로 30억개가 팔렸다. 회사 측은 23년간 판매된 햇반을 나란히 놓으면 지구 둘레(4만 192km)를 10바퀴 가량 돌수 있다고 한다. 말이 30억개지, 어마어마한 숫자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더 많이 팔렸을 것이다.

언제부턴가 즉석식품들이 우리 밥상을 장악했다. 맷벌이 부부 증가에, 1인 가구(2019년 기준, 약 614만 7516가구)가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대세를 이루다보니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이라 불리는 즉석식품들이 식탁을 차지했다. 즉석밥을 필두로 각종 찌개류, 국류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요리(요리+어린이 합성어)들의 ‘식사준비’란 숙제를 간단히 풀어주고 있다. 밥과 국·찌개가 지겹다면

삼계탕 같은 메뉴를 선택해도 된다. HMR 제품들은 ‘맛과 건강보다, 바쁘니까 그저 한끼 때우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HMR 제품들은 웬만한 사람들의 어설픈 솜씨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으며 메뉴를 계속 넓혀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7년 약 2조 1500억 원이었던 HMR 시장이 지난해에는 3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 그래도 바쁘고 귀찮아 음식 준비하는 게 부담스러운 판에, 지난해 창궐한 코로나19가 HMR의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면서 온 가족이 집콕을 하다보니 하루 세끼를 매일 챙겨 먹기가 귀찮은데 HMR 제품이 다양하고 참신한 메뉴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가구 구조의 변화로 이미 HMR는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다.

집에서 밥 하는 게 귀찮으면 배달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배달천국’이다. 예전엔 그저 짜장면이나 치킨 정도에 그쳤지만, 요즘은 고급 레스토랑의 테이블을 통째로 옮겨온 것처럼 음식의 품질이나 종류가 다양해졌다. 자연스레 배달산업도 폭풍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란 회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앱 거래 규모는 지난해 15조 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달 앱 시장은 2017년 2조 4760억 원에서 2018년 4조 9890억 원, 2019년 9조 2950억 원, 2020년 15조 원(추정치)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집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다보니 집밥이나 외식 대신 배달음식을 선택한 결과다.

반면, 외식산업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외식산업 경기지수는 59.33으로 집계됐다. 이는 aT가 2011년 이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다. 외식업종의 회생을 배달업종이 가져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제 집에서 밥 짓겠다며 쌀을 썻거나 찌개를 끓이기 위해 음식재료들을 썰고 하는 부산을 떨 필요가 없다. 그냥 먹고 싶은 HMR 제품들을 주문해서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그것도 귀찮으면 배달음식을 시켜먹으면 된다. 그러면서 어느새 살림하는 게 추억이 됐다. 살림하는 사람들이 살림 하지 않는 게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통&라이프부장 yjh@metroseoul.co.kr

마승철 회장, 제5대 주류수입협회장 취임

〈나라셀라〉

‘국내주류 산업 도약에 주력할 것’

나라셀라 마승철 회장이 한국주류수입협회 5대 회장에 취임했다. 마 회장은 올해 임기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2년간 한국주류수입협회를 이끌게 됐다.

마 회장은 1984년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씨그램에 입사하면서 주류업계에 입문해 디아지오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나라로지스틱스 대표를 거쳐 현재 와인 수입사인 나라셀라를 비롯해서 나라로지스틱스, 더박스의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30여년 간 주류업계 한 길만 걸은 주류 전문가인 마 회장은 두산씨그램 근무 당시 원저, 서비스리갈 등 유수의 브랜드를 담당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05년 와인물류회사인 ‘오크라인’(현 나라로지스틱스)을 설립했



다. 2015년에는 국내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며 ‘국민와인’으로 불리는 몬테스 알파를 수입하는 나라셀라를 인수해 물류와 시너지를 이끌어 내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마 회장은 임기 내에 그 동안 주류업계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많은 중

소 주류업체들과 공유하고, 국내 주류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마 회장은 “한국주류수입협회 회원사는 물론 관련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 협회의 위상과 기능을 높이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며 “종량세, 주류스 마트오더 시행 등 급변하는 국내 주류 시장의 변화에 주류기업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소 주류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주류수입협회는 지난 2002년 설립 이후 주류 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와인과 맥주, 위스키 등 다양한 수입 주류를 유통하는 60여 개 주류 수입 회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인사

◆**송실태** △교육대학원장 김명숙 △진로취업센터장 이용규 △대학교육혁신원 부원장 유기웅

◆**한남대** △감사실장 전현철(겸직 산학협력단 감사) △기획조정처 부처장 김명준(겸직 대학혁신사업단 기획운영본부장) △교무처 부처장 노금환(겸직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입학홍보처 부처장 하은경(겸직 한남미디어 센터장) △중앙도서관장 한상수(겸직 중앙박물관) △캠퍼스혁신파크선도사업단장 원구환 △산학협력단 부단장 하성호 △LINC+ 사업단 부단장 유금 △교직부부장 박양주 △대학원 교학부부장 유천성 △산학협력단 산학협

력본부장 김운중(겸직 창업보육센터장)

◆**UPI뉴스** 스팀사보도팀장 김지영

부음

▲ 차수명(전 특허청장·제 14대(울산 남구, 통일국민당·무소속·민자당·신한국당)·15대(울산 남구갑, 신한국당·한나라당·자민당) 국회의원)씨 별세, 박영숙씨 남편상, 차정민·차현정·차주연·차호준씨 부친상 = 16일 오후 1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8일 낮 12시, 장지 경기도 이천 애덴낙원. ☎ 02-2258-5979

▲ 이청자씨 별세, 이윤재(인터넷신문위원회 감사·전 디지털투데이 대표·전 전자신문 국

장)씨 모친상, 오상욱(전북대학교 교수)씨 장모상, 이지현(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주임)·이수현(SK하이닉스 TL)씨 조모상, 김세진(대제중학교 교사)씨 외조모상 = 17일 오전, 일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9일 오전 11시 30분. ☎ 031-900-0444

▲ 이태경씨 별세, 이혜진씨(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부친상=17일 노원을지대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 02-970-8444

▲ 공철원씨 별세, 조분남씨 남편상, 공두식(삼성여객 근무)·공현순·공천식(회사원)씨 부친상, 정종식(마니투데이 부국장)씨 장인상 = 17일 오전 11시 35분, 성남중앙병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 031-799-5267